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리뷰 :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SalvadorAllende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영화 포스터)

전 세계에 있어서 1968년은 혁명의 해였다. 그해 1월 북베트남군과 베트남이 남베트남 전역에서 감행한 이른바 구정공세(Tet Offensive)는 전 세계를 혁명과 저항의 길로 인도했다. 프랑스 파리에선 5월 혁명이라 하여 기존의 보수주의에 맞서는 것과 동시에 체게바라와 마오쩌둥 그리고 호치민의 초상화가 곳곳에 등장했다. 이것은 단순히 프랑스뿐만이 아니었다. 미국과 영국, 서독, 이탈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에선 반전운동과 더불어 대통령 선거 그리고 흑인인권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구정공세로 거짓말이 다 드러난 린든존슨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미국 내의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반전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바로 흑인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이 암살당하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온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또한 암살당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리게 되었다.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자, 정치적 분파를 막론하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카고 시장이 집회를 불허한 것이었다. 결국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체포되었고, 평화롭게 진행하고자 했던 시위는 경찰과 주방위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해산됐다.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

린든 존슨 대통령이 구정공세의 여파로 물러나게 된 이후 공화당 출신 대통령 닉슨은 반전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본보기 삼아 법정에 세우려 했다. 닉슨 정부와 재판을 담당한 법정은 이미 자신들만의 결론을 낸 상태에서 6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시위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8명을 불법시위 주동 및 내란선동으로 구속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구속된 이들은 서로가 소속이 달랐다. 한쪽은 1960년대 문화운동 혹은 혁명을 주장하던 국제청년당 즉 히피(Hippie)계열이었고, 다른 한쪽은 민주사회를 위한 청년학생 모임(SDS) 계열이었으며 또 다른 한쪽은 급진적인 흑인인권운동을 전개하는 흑표당(Black Panther Party) 계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속 및 정치성향의 차이는 재판을 계획한 측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전운동에 참여했던 히피, 이들은 프리섹스, 마약, 너털너털한 복장 등으로 대표되는 당시 1960년대 저항의 상징이기도 하다.)

재판을 시작하기 전부터 재판을 담당한 측은 이 사건을 내란음모와 폭력시위 선동으로 몰기 위해 온갖 조작과 음해를 계획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이들의 치졸한 행위는 특히나 급진적 성향이 강한 흑표당 대표에게 가장 많았다. 재판 시작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주지 않고, “변호사가 없는 피고는 발언할 수 없다”와 같은 황당무계한 짓도 행한다. 즉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조작된 경찰 살해사건으로 몰아가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검사조차도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무자비한 폭력을 재판에서 자행하기 까지 한다. 이것은 바로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톰 헤이든, 영화상에 나오는 톰 헤이든은 SDS의 대표이다. 그는 나중에 4,572명의 미군 전사자 명단을 마지막 공판에서 읽어 내려간다.)

결국 흑인 인권 운동가인 프레드 햄프턴 흑표당 일리노이 지부장이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 등을 항의하며 법정에서 고함을 질렀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았고, 이후 술츠 검사는 그런 실의 모습이 배심원단이 피고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할 것을 우려하여 실을 재판에서 제외시킬 것을 판사에게 요구해 관찰시킴으로써, 재판은 시카고 8의 재판에서 시카고 7의 재판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영화 제목이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8이 아닌 7인 것이다.



(반전운동을 진압하는 경찰과 최루탄 때문에 피하고 있는 반전 시위대)

그 외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입증할 기회를 재판 담당판사는 주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이 재판 자체가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을 폭동 혹은 내란선동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사법 측은 이들이 폭동을 선동하고 계획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정보 및 자료조작과 그들의 녹취된 연설에서의 몇몇 단어들을 꼬투리 잡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 했다. 애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시위는 경찰과 주방위군이 정부의 명령을 받고 폭력을 부추긴 사건이었기에, 이들의 조작은 갈수록 더 사악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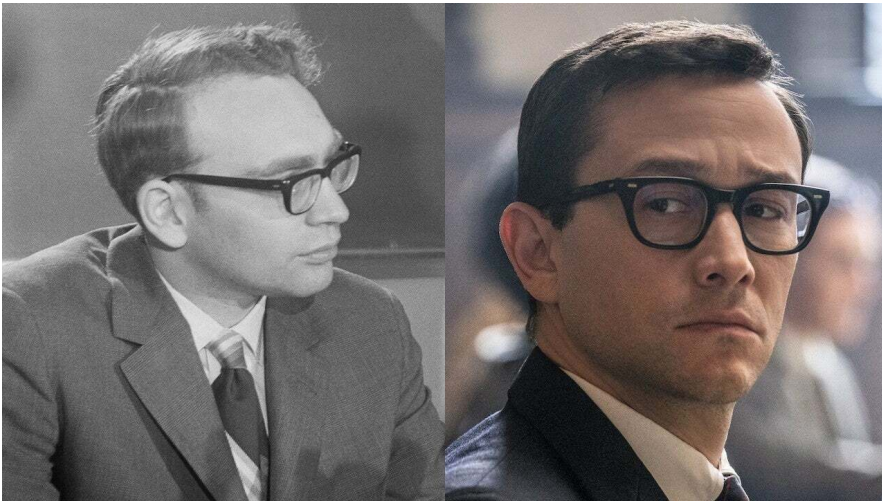
(시카고 재판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당시 사건 담당 판사였던 율리우스 호프먼은 어떻게든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

몇 개월간의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SDS 래니 데이비스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명단을 매일같이 작성해 나갔다. 그렇게 해서 총 4,752명의 미군 장병 명단을 확보했고, “전 세계가 우릴 지켜보고 있다”는 메아리 속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SDS의 지도부인 헤이든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재판 시작부터 그날까지 베트남에서 전사한 4,752명의 미군 명단을 줄줄이 읽어 나간다.



(극중에서 나오는 재판 당시 모습)

영화를 보면서 국내에서 개봉했던 영화 ‘1987’과 ‘변호인’이 꽤나 오버랩 됐다. 배경은 다르지만 국가의 조작과 각본에 의해서 전개된 재판이라는 점, 그리고 안보라는 핑계로 무고한 이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상에선 “전 세계가 보고 있다(Whole World is Watching)”라는 명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영화에서 얘기하는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시카고에서 열린 재판을 생각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이 형식재판은 반전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사건 담당 검사 리처드 솔츠, 그는 반전 시위대를 싫어하는 보수주의자였지만 이 재판 자체가 무리수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본분을 다하면서도 어떤면에선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더 큰 그림을 보자면 이것은 당시 이런 재판을 주도해가며 침략전쟁인 베트남 전쟁을 지속하고 있던 미국 그 자체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다. 영화상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는 이들이 정파를 떠나 민주당 전당대회에 모였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 자행하고 있던 부도덕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고,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함이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볼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은 미국이 저지르고 있던 베트남 전쟁과 그 자체의 범죄와 부도덕함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나온 히피와 흑표당등과 같은 1960년대에 대해 더 얘기하겠다. 1960년대의 미국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혁명과 저항의 시대였다. 당시 여성운동을 하던 이들은 보수적인 성적 억압에 맞서 자유연애를 주장했고, 흑인인권운동을 하던 이들은 말콤X나 마틴 루터 킹의 영향을 받아 더 나은 권리와 평등을 주장했다. 그 외에도 미소냉전에서 전쟁의 무서움과 부도덕함을 알게 된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미국의 침략전쟁인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다. 이러한 변화가 미국사회에서 일어났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꽤나 잘 표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화를 한 작품이기에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도 보였다.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운동과 사회 변혁 그리고 부조리한 권력에 맞서는 것이 왜 필요한지 영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